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한가정한선교사·농어촌100교회 Vision2030 후원자 모집

2024년도 한가정한선교사 운동,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30 운동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후원 접수 용지를 작성하여 로비에 비치된 접수함에 넣어 주

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따뜻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민족,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정한선교사 후원자

손달익·박영숙(1) 홍순복(1) 오정수·이영희(1) 하인선·남태순(1) 최광성·이정연(1/2) 임상현·서희숙(1) 송인권(1) 안인호·이명신(1) 노제현(1) 유충기·김복희(2) 차영도·정미연(1/2) 서은석·김미성(1/2) 김혜연·박은영(1) 이민호·김희(1/2) 김익환·이선애(1/2) 박미라(1/2) 이순례(1) 유형석·제오복(1) 김세호(1) 김애리(1/2) 김성주(1) 최죽희(1/2) 허경화(1) 김유평·이순형(1) 홍석현(1/2) 하혜심(1) 김은석(1/2) 황병석(1/2) 서대식·정승자(1) 김광민·박민숙(1) 주화인(1) 전인숙(1/2) 박정자(1) 홍한규(1/2) 홍혜란(1/2) 홍혜련(1/2) 문동진·김은정(1) 김정훈(1) 김재중·김유경(1) 김소희(1) 송성식·정희순(1/2) 양승호·고은희(1/2) 지성철(1) 유형석·제오복(1) 에스더전도회(1) 리브가전도회(1) 사라전도회(1/2)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손달익·박영숙(1) 홍순복(1) 오정수·이영희(1) 최광성·이정연(1/2) 하인선·남태순(1) 임상현·서희숙(1) 안인호·이명신(1) 차영도·정미연(1/2) 서은석·김미성(1/2) 노제현·김복희(10) 유충기·김복희(2) 김혜연·박은영(1) 이민호·김희(1/2) 김익환·이선애(1/2) 박미라(1/2) 유성택·권진순(1) 김성주(1/2) 허경화(1) 김유평·이순형(1) 하혜심(1) 김은석(1/2) 황병석(1/2) 정춘혜(1/2) 김광민·박민숙(1) 전인숙(1/2) 김애리(1/2) 박정자(1) 홍혜란(1/2) 홍혜련(1/2) 문동진·김은정(1) 김정훈(1) 이순례(1) 원유현·전성희(1) 김재중·김유경(1) 김소희(1) 송성식·정희순(1/2) 양승호·고은희(1/2) 지성철(1) 유형석·제오복(1) 에스더전도회(1) 리브가전도회(1) 사라전도회(1/2)

Vision2030 후원자

손달익·박영숙(5) 홍순복(3) 오정수·이영희(5) 최광성·이정연(1/2) 하인선·남태순(5) 임상현·서희숙(5) 송인권(1) 노제현·김정희(10) 유충기·김복희(2) 차영도·정미연(1) 서은석·김미성(5) 김혜연·박은영(2) 이민호·김희(1) 조원영·이진희(5) 김익환·이선애(2) 박미라(1) 김광래(1) 김광민·박민숙(1) 김명자(1) 김성주(1) 김양숙(1) 김애리(1) 김유평·이순형(5) 김은석(1) 김재중·김유경(2) 김정훈(1) 김진숙(1) 노정진(1/2) 문동진·김은정(5) 박복순(1) 박정자(2) 안선광·고영숙(2) 오만옥·박미영(1) 위성남(1) 유성택·권진순(2) 유형석·제오복(2) 이강전·이연서(2) 이순례(2) 임선철·이영주(2) 전성희(1) 전인숙(2) 정복순(1) 정춘혜(2) 조정옥(1) 지성철(3) 하혜심(1) 허경화(1) 홍한규·모양순(2) 홍혜란(3) 황병석(2) 황재연(1) 에스더 전도회(2) 리브가전도회(2) 사라전도회(5)

(다음 주 계속)

호산나대학·놀러오개 '발달장애인 애견훈련사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산·학 업무협약' 체결

호산나대학은 1월 12일(금) 애견유치원·호텔 전문기업 놀러오개(대표:왕우신)와 '발달장애인 애견훈련사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호산나대학 애견케어학과 학생들이 애견 관련 전문기업에서의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애견전문가 교육을 통하여 양 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협력 및 수행 내용은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 취업 알선에 관한 제반 사항 ▷공동연구

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교수 및 현업 종사자의 연수 또는 재교육에 관한 사항 ▷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사용 ▷산업체 협동교수 추천에 관한 사항 등 상호 긴밀한 협력을 할 것입니다.

놀러오개 왕우신 대표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발달장애인 학생들의 밝은 모습과 호산나 애견직업훈련센터의 시설 및 교육환경이 인상적이며,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지원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호산나대학 애견케어학과는 발달장애인 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료를 원하는 성도들은 seoulch@hanmail.net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성명 / ② 주민번호 / ③ 전화번호
- ④ 주소 / ⑤ 가족합산 여부

연말정산 자료는 수신 이메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 (담당: 송미라 권사)
- * 제공된 개인 정보는 연말정산 후 삭제함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오원준 감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김예준 김재용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호산나대학과 놀러오개 산·학 업무협약식 왼쪽에서 두 번째 이동귀 학장과 왕우신 대표

견훈련사 양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개설되었고, 학생들은 애견훈련사, 애견미용사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전국 발달장애 중·고등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마 5:13-16)



손달익 위임목사

우리 교단 총회가 처음 모임을 가진 것이 1912년 9월 1일 평양 경창문안여자 성경학교에서였습니다. 그 후 해마다 정기 총회를 가졌고 일제 강점 말기인 1943년에 한국교회 전체가 일본 교단에 강제 예속되어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으로 변경되는 등의 사정으로 해방 때까지 3년간 모이지 못했지만 6·25 한국전쟁 중에도 피난지였던 대구와 부산에서 총회가 모여 전쟁 중 국가현실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의논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총회는 민족 구원을 위한 구령사업과 국민계몽

과 독립운동의 선두에 서서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을 견인했던 전국의 유생들이 한일 강제 합병에 통분하여 자결할 때 우리 선배 지도자들은 이 민족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구하려는 독립운동의 선두에서 항일의 길을 걸었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한국장로교회는 민족과 함께 하면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십자가로 여기면서 시대마다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세상 속의 교회, 세상 속의 성도들의 존재 의미와 책임을 매우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재확인하고 사명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소위 산상보훈으로 불리는 본문의 말씀은 일반 대중들보다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셨다는 것도 큰 무리이기보다는 소수를 대상으로 하신 신중하고도 진지한 교육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눅 6:12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을 주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신 직후 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시류에 영합하여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요, 이 땅의 화려함에 마음이 분산되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벧전 2:9). 우리는 이 신분, 이 정체성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신앙의 모든 선한 역사는 '나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2. 왜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인가

'세상'은 악한 영들에게 장악당한 타락한 인간세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고,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 새 땅으로

변화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을 사랑 하시며,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 역사를 다스리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버림받고 폐허가 되고 몰락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이 구원 받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책임과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소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란 문명생활을 가능케 하는 필수 물질로 여겨졌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Pliny Elder는 소금과 태양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을 소금으로 표현하신 것은 그들이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며 역사의 필수적 존재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빛의 여러 기능이 있지만 본문에서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힘으로서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다"(요일 1:5)라고 하고, 또 주님은 스스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요 8:1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의지하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지닌 세상에서의 공적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결코 홀로 종교적 환각상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공공성 있는 사회적 책무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3. 교회의 공적 사명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변을 돌아보는 공적 의무에 성실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의 귀족들에게 노예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하도록 강조했습니다. (엡 6:9)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골 3:11). 사람은 사회적 신분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서로 지체된 관계임을 말하면서 바울은 서로 차별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들이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요,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초기 교회의 파격적 모습이 복음의 전파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인 것의 징표는 나의 가벼운 입 자람에 있지 않고 묵묵히 이웃의 구원과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치도록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실천으로 우리 신앙의 정당함과 자랑스러움을 확증해 보이는 빛과 소금된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16절). 우리가 공적 책임 앞에 성실해야 함이 옳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실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했지만 늘 자기중심의 이기심을 극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리 다툼과 시기심으로 내부적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들의 이런 이기적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 사이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랑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울교회의 선교사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손달의 위임목사님과 서울교회 성도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총회세계선교부의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크나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멕시코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으로 인한 멕시코 장로교회 소속 교회들의 재난 소식을 현지 선교사회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는 사회봉사부와 세계선교

부가 함께 협력하여 현지 교회들을 지원키로 하고 긴급한 모금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참하여 서울교회에서 멕시코의 아카폴코시에 있었던 대형 재난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귀한 선교헌금을 총회세계선교부를 통해 지원해 주셨다는 보고를 듣고 너무나 감사하여 감사의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카폴코에 있는 임마누엘교회는 허리케인 오티스로 인해서 어려운 위기에 있었지만 서울교회가 보내주신 선교비 미화 11,000 달러를 예배당의 재건축과 생필품 구입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서 위기를 이겨가고 있다는 보

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교회의 이웃사랑과 선교열정의 마음을 멕시코에까지 전달하게 되어서 그곳 임마누엘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여 총회세계선교부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손달의 위임목사님과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4. 1. 13.
총회세계선교부 부장 서은성 목사

< 멕시코장로교회(INPM)총회 산하 구호 요청 8개 교회 >

교회명	교역자	교회명	교역자
Maranatha Costa Azul 교회	Adan Mendoza 목사	Jesus de Nazaret 교회	Alejandro Loya 목사
Emanuel 교회	David Sosa 목사(미자립 교회)	Principe de Paz 교회	Loya Aguilar 목사 (미자립 교회)
Puerta de Salvacion 교회	Enrique Cardenas 목사 (미자립 교회)	Getsemani 교회	Jose Jimenez Clavel 목사 (미자립 교회)
Maranatha Vista Alegre 교회	Manuel Bravo Galindo 목사 (미자립 교회)	Rey de Salem 교회	Fulgencio de Jesus Abarca 목사 (미자립 교회)



2024 청년부 필리핀 비전트립

2024 서울교회 청년부 필리핀 비전트립

참여자(18명)

광석범
고려환
권소희
박성진
박윤호
소준
송미정
유성결
유승연
유은경
유종기
이요한
장윤기
장해라
장해윤
조재석
채승호
연종필

필리핀을 아버지의 품으로...

Into The Father's Arms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시는데다
우리가 생각하던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후5:14)

2월8일(목)~13일(화)
필리핀 볼라칸 바티아

2024 청년부 필리핀 비전트립 기도제목

1. 필리핀 단기선교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역이 되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3. 선교팀을 파송하는 서울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역하는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4. 서울교회 청년부가 선교의 비전을 품은 비전 공동체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5. 현지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집회에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6.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 풍성하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7. 만나는 이들과 오고가는 길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안전한 여정되게 하소서
8. 팀원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소서 선교사역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소서

서울교회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손달의 위임목사님과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첫 주 신년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도 많은 기도와 다짐을 했지만, 죄송하게도 여전히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깊은 울림을 준 시가 있습니다. 구상 시인은 그의 시 '성탄을 일흔 번도 넘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탄을 일흔 번도 넘어 맞이하고도
나의 안에는 안일의 짐승만이 살고 있어
헤롯에 폭청 속, 세상에 오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고난의 생애엔 외면하고
부활만 탐내 바라고 있습네.

성탄을 일흔 번도 넘어 맞이하여도
나 자신 거듭나지 않고선
누릴 수 없는 명절이여!

일흔 번이 아니라 백 번, 천 번의 시간이 흘러 갈지라도 내 자신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명절이라고 했는데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크고 놀라웠는데, 드린 것이 없고, 드릴 것도 없고, 내 보일 것이 적어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은혜만 구하는 심정으로 한 해를 뒤돌아 봅니다.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도 2023년도 서울교회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이나마 확장해 나갈 수 있었고, 저희 교회는 작은 분량이지만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올 한 해는 서울교회가 손달의 위임목사님과 성도들이 무지개의 아름다움처럼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계절이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아름다운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전남노회 맑은샘교회 김창열 목사 올림

2024년은 군선교가 왕성히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 ▲▲2작전 사령부 무열대학교에서 모였던 영남권 육군MCF 활동
- ▲ 미용 봉사
- ▶ 주일예배와 세례식-주일예배는 현재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김태식 군선교사입니다.

서울교회의 사랑과 기도와 파송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하반기 동안 한마음군인교회를 위해 기도로 지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서울교회의 당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드리며, 2024년에도 군선교가 더욱 왕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더 많은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 상황에서도 코로나 확진자와 독감 환자로 인하여 격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에도 계속 격리는 진행되었으나 예배에는 큰

지장을 초래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집단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발생한 중대만 출입통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대 안 활동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들은 코로나 전과는 많이 다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을 향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용사들도 중요하지만 간부들이 믿음의 간부로 부름 받아야 함을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MCF(간부 외 군무원 포함)가

발족 되어서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부대 전반을 돕고 섬기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군선교사의 활동이 예배인도 외에도 타 활동들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힘 있는 사역과 성령충만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파송 군선교사를 지원해 주시는 서울교회의 부흥과 손달의 위임목사님, 당회와 온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천 제2탄약창 한마음군인교회
김태식 군선교사 드림

사도의 고별 설교

(행 20:17-38)

* 마지막 권면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전송하러 나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는 자기의 뛰어난 능력이나 우아한 삶을 칭찬해 달라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심오한 지식이나 폭넓은 사고, 예리한 판단력을 인정해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이 설교에서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양떼를 살피라, 부지런히 일하라, 원수를 조심하되 양의 가족을 쓴 이리를 특별히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28절).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감독자라고 부르신 것은 특별히 양들을 살피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건강을 돌봐주고, 원수로부터 양을 보호해 주는 목자처럼, 양을 위해서 자기가 피해를 입는 목자장처럼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장로들은 교회와 양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32절).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



고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한 것처럼 부족한 중도 사도 바울과 같이 앞으로 여러분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흩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과업을 신실하게 수행하면서 좀도 없고, 녹도 없고, 도둑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32절)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산 것만이 영원한 보화로 천국에 쌓이게 됩니다. 바울처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1. 사도는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아는 사람이 주님을 섬길 때 겸손하게 됩니다.

2. 사도는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3. 사도는 공적, 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사나 죽으나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4. 사도는 주님을 위하여 우선권 선택을 바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최우선으로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5. 사도는 탐욕 없이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할 때 아무런 욕심 없이 오직 주를 위하여 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6. 사도는 감독자로서 양을 위하여 희생했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7. 사도는 교회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사도는 기도하므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이와 같이 일하므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녹취 및 정리 허숙 권사(편집부)

* 2010년 12월 26일에 하신 주일 은퇴 고별 설교 마지막 5분간의 내용입니다.



식사 제공



- 5교구
안인호 장로·이명신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드리며)

서울교회 열린프로그램 겨울학기

1. 학기운영:클래스당 3개월 단위 (겨울, 봄, 여름, 가을), 10주 코스
2. 기간:1. 13일(토)-3. 17(주일), 10주
3. 운영비:각 학기당 90,000원(10시간 기준)
- 클래식기타·색소폰반은 별도)
4. 문의 및 신청:남재은 집사 (010-9189-8019)
5. 구글신청서 양식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악기	클래식기타 합주	주일	12:40-	10주	B101	장윤식 집사
	드럼	토	11:00-	10주	601	한도연 선생
	색소폰	토	14:00-	10회	B101	정인주 단장
	핸드벨	주일	14:30-	10주	402	송재월 권사
연기	찾아가는 힐링연기	토	11:30-	10주	702	박재현 배우
미술	비단부채에 피는 꽃 (비단채색화)	주일	14:00-(100분)	5주	704	유은경 집사

2024 청년부 비전트립팀 여름 의류·의약품 모집

2024 청년부 필리핀 비전트립팀에서 필리핀 빈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여름 의류와 수건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입지 않는 반팔 티셔츠와 수건(세탁 필수)
2. 의약품:처방전 필요 없는 감기약, 소염진통제, 마데카솔, 비타민 등
3. 수거 기간:1월 7일(주)-1월 28일(주) 4주간
4. 수거 장소:1층 로비 웨민홀과 102호 사이
5. 문의:권소희 권사·송미정 권사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매체인 성경통독			
1월22일	월	창 41:37-43:34	창23	마22	눅12	행22
1월23일	화	창 44-46	창24	마23	눅13	행23
1월24일	수	창 47-50	창25	마24	예1	행24
1월25일	목	출 1-3	창26	마25	예2	행25
1월26일	금	출 4-6	창27	마26	예3	행26
1월27일	토	출 7-9	창28	마27	예4	행27
1월28일	주일	출 10-12	창29	마28	예5	행28

성경일독 진도표와 구약과 신약, 시편을 구속사적으로 연결해서 1년에 구약 1독, 신약과 시편 2독을 하는 매체인방식 성경읽기표를 함께 게재합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에 의지하여 신행일치의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게 하여 주소서.
2. 한가정한선교사·농어촌100교회·Vision2030 후원 운동에 온 성도가 참여하여 주님의 대 위임령에 순종케 하소서.
3. 복음 위에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전쟁과 분열, 죽음과 고통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중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양정호
-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